

조선 시대 '化粧' 관련 어휘와 화장(化粧) 문화에 대한 고찰*

송미영**

1. 머리말
2. 조선 시대 '化粧'에 관한 어휘
3. '化粧' 관련 어휘를 통해 본 조선 시대의 화장 문화
4. 맺음말

1. 머리말

인간에게는 결핍 욕구를 넘어 '미적 욕구'라는 성장의 욕구가 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아름다움의 추구는 자신을 꾸미는 행위인 '化粧'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화장(化粧)은 장식, 이성 유인, 자기 보호, 종교적 행위, 신분 표시 등¹⁾에 기원을 두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화장(化粧)'은 “화장품을 바르거나 문질러 얼굴을 곱게 꾸밈.”, “머리나 옷의 매무새를 매만져 맵시를 냈.” 등을 가리킨다. 본고에서는 '化粧'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이와 동의(同意) 또는 유의(類義) 관계를 형성하는 관련 어휘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주목하였다. '화장'이라는 단어가 개화기 일본으로부터 수용되었다는 기준

* 이 연구는 아모레퍼시픽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김지희·정윤희·황윤정, 2006 『20세기 화장문화사』, 경춘사, 9-12면.

의 견해와 달리 조선 후기 국문 소설에서 나타나는바 조선 시대 화장에 관한 어휘사를 토대로 당대의 화장 문화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로 한국의 화장 문화, 한방 화장품의 문화사, 일본과 한국의 화장과 화장품, 시대별 화장품, 조선 왕실의 화장 문화 및 화장품 등이 있다.²⁾ 이들은 분야에 차이는 있으나 모두 화장, 화장품, 화장 문화 등을 다루었다. 따라서 화장 관련 어휘에 관한 국어학적 접근, 동시대와 이후 시대와의 연계를 통한 어휘사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조선 시대 각종 문헌과 사전류, 한국어 역사 말뭉치 등을 활용하여 관련 어휘를 추출함으로써 실제 어휘의 사용 양상에 주안점을 두어 서술할 것이다.³⁾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化粧’이라는 용어는 개화기 일본에서 화장품이 수용되면서 전래한 것⁴⁾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실(其實) 조선 후기 연대 미상의 소

2) 전완길, 1980 『韓國人·女俗 및 5000년』, 敎文社; 1987 『韓國化粧文化史』, 열화당; 김은주, 1989, 「韓國 傳統 化粧風俗史에 관한 研究」, 『服飾』 13, 38-50면; 김남일, 2013 『한방화장품의 문화사』, 들녘; 김현정, 2013 「일본 에도(江戸)·메이지(明治)시대의 눈썹화장의 양상에 대한 고찰 — 조선시대 후기 눈썹화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日本文化學報』 58, 143-162면; 김현정, 2014a 「조선시대 후기 화장수와 화장크림의 양상에 대한 고찰 — 동시대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日本文化學報』 61, 173-192면; 2014b 「개화기 이후 한국에서 사용된 ‘化粧(化粧)’ 용어의 유래에 대한 고찰」, 『일어일문학』 63, 109-126면; 윤지영 외, 2011 「천연원료를 이용한 기초화장품의 역사적 고찰」, 『기초과학연구 논문집』 19, 141-148면; 유호진 외, 2011 「시대별 경향에 따른 우리나라 화장품의 역사적 고찰」, 『기초과학연구 논문집』 18, 141-148면; 우미옥·박혜진, 2013 「〈규합총서〉에 소개된 한방 화장품 재료의 생리 활성에 대한 효능 고찰」, 『한국메이크업디자인학회지』 9(2), 1-21면; 박희원, 2019 「18세기 화장용 자기의 특징과 수용과정을 통해 본 조선왕실의 화장문화 —〈화협옹주묘 출토품〉을 중심으로」, 『국제학술대회 18세기 조선왕실의 화장품과 화장문화 자료집』, 73-96면; 정용재, 2019 「조선시대 화장품 재현 및 분석연구」, 『국제학술대회 18세기 조선왕실의 화장품과 화장문화 자료집』, 49-70면.

3) 조선 시대 문헌은 디지털 장서각과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어 역사 말뭉치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왕실의 기록과 일상 어휘의 사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되도록 다양한 언어 자료를 참고하였다. 사전류는 아래와 같다.

국립민속박물관, 2017 『한국의식주생활사전』 의생활 ①·②;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편,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1-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황문환 외 엮음 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6,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문생활사연구소.

4) 전완길(1987: 16)에서는 ‘化粧’은 개화기 이후 일본으로부터 유입된 어휘이며 이것은 ‘假化’, ‘假飾’이라는 ‘거짓 꾸밈’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였다. 김은주(1989: 38)에서도

설에서 ‘化粧’의 의미를 가진 “화장”이라는 용어가 발견되며 이것과 유사한 뜻을 가진 다양한 단어들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미상의 차이도 보인다. 그렇다면 조선 시대의 화장(化粧) 관련 어휘에는 무엇이 있었고 화장 문화는 어떠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언어는 인간의 삶의 기록이자 당대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 이에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조선 시대 ‘化粧’에 관한 어휘의 쓰임을 통해 당대의 화장 문화에 대해 고찰하고자 함이다.

2. 조선 시대 ‘化粧’에 관한 어휘



〈그림 1〉 ‘化粧(化粧)’의 낱말발⁵⁾

후술하겠지만 ‘化粧’은 조선 후기부터 사용된 것으로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국어에서는 ‘메이크업⁶⁾’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생성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이전에는 어떠한 단어가 ‘化粧’을 대신하였고, 가리키는 대상과 범위는 동일했는가에 초점을 두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유의 관계를 이

루는 단어들을 하나씩 확인해 봄으로써 그 의미 차이를 밝힐 것이다.

〈그림 1〉 낱말발에서 문헌상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장식(粧飾)’이다.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얼굴 따위를 매만져 꾸밈. 또는 그 꾸밈새’를 뜻한다. 또한 ‘장

“化粧과 化粧品은 日本人들의 造語이며 개화기 이후 신식 화장품이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와 병합 이후 보편화”되었다고 보았다. 더불어 김현정(2013: 151)에서 조선 시대에는 화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어 김현정(2014b)에서는 일본의 경우 해당 용어가 일찍부터 쓰였고 이것이 개화기에 수용된 것으로 보이며 개화기 이전의 우리나라에서는 ‘분대(粉黛)’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제시하였다.

5) 『표준국어대사전』의 ‘화장’ 관련 유의어를 토대로 (주)낱말에서 제공한 것이다.

6) 메이크업(makeup)은 ‘기초화장을 한 다음에 하는 색조 화장’, ‘배우가 연극이나 영화 따위에 출연할 때에 하는 무대 화장’ 등을 뜻한다.

식(裝飾)은 ‘액세서리 따위로 치장함. 또는 그 꾸밈새’나 ‘그릇, 가구, 옷 등에 쇠붙이·형겉·뿔·돌 따위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 다는 데 쓰는 물건’을 의미한다. 의미상 전자의 장식(粧飾)이 화장(化粧)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내용에 따르면 본디 ‘장식(粧飾)’은 후자 즉 ‘장식(裝飾)’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造師子座一百, 彩畫粧飾... 사자와 100개를 만들어 채색 그림으로 장식하였으며... <高麗史 권26 世家 元宗 5년(1264. 7. 27.)>”에서 ‘粧飾’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1) 가. 在京文武四品以上官命婦, 於本月初七日早, 各素服, 不用金銀珠翠脂粉粧飾... 명나라 서울[京師]에 있는 문무 4품(文武四品) 이상 관원의 명부(命婦)는 본월(本月) 초 7일 아침에 각각 소복(素服)하고, 금은(金銀)·주취(珠翠)·지분(脂粉)·장식(粧飾)은 사용하지 못하고...

〈太宗實錄 권14(1407. 8. 29.), 庚戌 첫 번째 기사〉

- 나. 兩使臣及頭目等所求雜物, 粧飾皮革凡求請數多... 두 사신과 두목(頭目)들이 청구하는 잡물(雜物)과 장식(粧飾) 피혁(皮革)은 그 청구하는 숫자가 많아서... <世宗實錄 권20(1423. 4. 13.), 癸亥 세 번째 기사〉

- 다. 靑을 물며 綠을 숫고 또 金으로 粧飾호느니

〈金剛經三家解(1482) 4:58b〉

- 라. 趙, 宋乾坤金粧飾. 조가(趙哥)와 송가(宋哥)의 건곤(乾坤)이어서 온통 금(金)으로 장식(粧飾)하였다.

〈英祖實錄 권42(1736. 7. 15.), 丁未 네 번째 기사〉

- 마. 照鏡 거울 보다 粧飾 단장호다 文飾 빛나게 꾸미다

〈蒙語類解(1790) 上:42b〉

- 바. 김집이 붓탁호 연실은 듯 쌍 장식호여 보니니

〈송별필가-03(1889) 송병필(남편) → 전주이씨(아내)〉

- 은으로 장식호 연실 보니라 기별호엿더니

〈송별필가-05(1889) 송병필(남편) → 전주이씨(아내)〉

- 사. 각 공스관 중에 더욱 미술 장식 美術 粧飾 호 것은 <독립신문(1899) 14〉

(1가)의 명부(命婦)는 봉작(封爵)을 받은 부인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이들이 예를 갖추어야 하므로 지분(脂粉), 연지(臙脂)와 백분(白粉)[화장품]과 장식(粧飾)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1나)에서 장식(粧飾)은 사신이 요구하는 품목에 포함되어 있다. 반면 (1다)의 경우에는 ‘~으로 장식하다’는 의미로 쓰였

다. 즉 조선 전기에는 주로 ‘장신구’를 지칭하였고, ‘도구를 활용한 장식 행위’라는 의미로도 쓰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化粧)이 얼굴을 꾸미거나 머리, 옷 등의 매무새를 매만지는 것에 한정된다면 장식(粧飾)은 꾸미는 도구와 꾸미는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화장(化粧)보다 먼저 사용되었던 것이다. 조선 시대의 장식(粧飾)은 얼굴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장신구나 몸을 치장하는 장식(裝飾)의 의미를 가지며, 장식(裝飾)은 조선 시대에는 ‘飾’이라는 한자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장식(粧飾)’은 (1바)와 (1사)에서와 같이 그 대상이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으며 19세기 말까지도 얼굴 따위를 꾸미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다음으로 ‘분대(粉黛)’는 현대국어에서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이나 ‘화장한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활용된다. 그러나 『高麗史節要』에 따르면 고려 후기 ‘분대(粉黛)’는 ‘여인’과 ‘화장’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활용되었고⁷⁾ 『朝鮮王朝實錄』에서는 ‘아름답게 화장한 여인’ 즉 전자의 의미에 가깝다.

(2) 가. “三千粉黛當墳照, 八十妍花對面生. 福哉亡者!” “3천이나 되는 분대(粉黛)가 분묘에 와서 비치고 80이나 되는 고운 꽃이 대면(對面)해서 생기도다. 복도 있다. 죽은 사람이여!” <端宗實錄 권8(1453. 10. 24.), 丁未 첫 번째 기사>

7) 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편(2001, 권2: 1114)에 따르면 분대(粉黛)는 얼굴에 바르는 분백분과 눈썹을 그리는 먹[眉墨]을 뜻하는 것으로, 전(轉)하여 화장(化粧) 또는 화장품의 대명사로 사용되었으며 미인을 가리키는 용어였다고 한다. 전(轉)하여 고려 시대부터 궁녀와 기생들이 주로 화장을 하였기 때문에 궁녀(宮女) 또는 기생(妓生)을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 충목왕 대(代) 권부(權溥, 1262~1346)의 묘지명과 『高麗史節要』의 공민왕 대(代) 기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目不睨粉黛, 口不商財賄. (권부(權溥)는) 눈으로는 여인[粉黛]을 엿보지 않고 입으로는 재물을 헤아리지 않았다. <權溥墓誌銘 忠穆王 2(1346)>

나. “吾夫平日未嘗睨粉黛, 今, 妾未亡, 何忍背耶...” “우리 남편은 평소에 일찍이 다른 여자를 곁눈질로 본 적도 없는데, 지금 내가 미망인으로서 어찌 차마 (남편을) 배반하겠는가.” <高麗史節要 권28 恭愍王 15(1366. 12. 미상(음력))>

다. 常自粉黛, 爲婦人狀... (자제위가) 항상 스스로 화장을 하여 부인의 모습을 하고는... <高麗史節要 권29 恭愍王 22(1373. 2. 미상(음력))>

가)와 나)의 분대는 ‘여성’을, 다)에서는 ‘화장’을 가리킨다. 근접한 시기에 두 가지 의미로 쓰였으나 ‘화장’보다 ‘여성’이라는 뜻으로 먼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而性喜聲色絲竹, 粉黛不離左右, 習於宴嬉, 懶不事公務…
성품이 음악과 여색과 거문고와 통소를 좋아하여 분대(粉黛)가 좌우(左右)를 떠나지 않았으며, 즐겨 노는 것이 습관이 되어 공무(公務)에 게을러 힘쓰지 않았으므로… <肅宗實錄 권19(1688. 3. 23.), 丙申 첫 번째 기사>
- 다. 궁중의 가득한 삼천분디(三千粉黛)의 무리 <嚴氏孝門淸行錄(연대 미상)>
- 라. 沈聽悟沉訥, 寡言善斷. … 不接金玉, 婦女不粉黛. 최항은 총명하고 침착했으며, 과묵하면서도 판단을 잘 내렸다. … 진귀한 물건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집안 여자들은 화장하지 않았다. <高麗史 권93, 列傳6 崔沆>
- 마. 고운 사르미 누른 흘기 드외니 흐물며 粉黛를 비러 쓰던 거시씨녀(美人爲黃土 況乃粉黛假) <杜詩諺解(1481) 6:1b>
- 바.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라…
<용부가(庸婦歌)(연대 미상)>
- 사. 호치 단순(皓齒丹脣)이 찬연(燦然)히여 분디(粉黛)흔 미인을 웃는디라 <現夢雙龍記(연대 미상) 1:19a>

‘화장(化粧)’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까지 분대(粉黛)가 이를 대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을 지칭하였다는 견해⁸⁾가 있다. 실제로 (2가)에서 (2다)와 같이 조선 시대의 분대(粉黛)는 ‘궁녀’ 또는 ‘기생’ 즉 ‘곱게 화장한 여인’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는 『韓國人·女俗 몇 5000년』(전완길, 1980)을 참고하여 고려 시대부터 기생들이 분대로 화장을 하였기 때문에 기생의 별칭(別稱)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이때 분대는 백분과 미묵을 가리키는 것 외에 화장·화장품·미인·기생·궁녀·창녀의 대명사라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대’의 쓰임은 몇몇 문헌에서 확인되는데 조선 전기에 간행된 것으로 알려진 『高麗史』에서 ‘화장’의 의미를 띤 (2라)와 같은 예가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담은 조선 전기[언해(諺解)] 두보의 시 (2마)「玉華宮」의 “고운 사람[美人]도 (죽으면) 흙이 되는데 하물며 분과 눈썹떡으로 꾸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에서도 분과 눈썹 화장을 의미한다. 이는 (2바)에서 ‘살짝 칠한 얇은 화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본래 분대는 궁녀나 기생과 같이 곱게 단장한 여인을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되었고, ‘화장(化粧)’의 의미로는 잘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후 (2사)와 같이 ‘분디하다’라는 동사로 쓰여 ‘여인’의 의미가 점차 약화되면서

8) 김현정, 2014a 앞의 논문, 112면.

오늘날 얼굴을 곱게 꾸미는 '化粧(化粧)'을 지칭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粉黛'는 '분'과 '먹'을 이용한 얼굴과 눈썹 화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미가 전이되어 고려 후기 문헌에서는 '여인'과 '화장'으로 쓰였고, 조선 전기에도 두 가지 쓰임이 발견되나 '여인/미인'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化粧'을 가리키는 뜻으로 보다 뚜렷해진다. 요컨대 '粉黛'라는 단어의 의미상 '화장' > '미인'으로 변화해야 하나 의미가 전이되면서 실제 문헌에서는 '미인' > '화장'으로의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현대국어 사전에서 첫 번째 의미로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이, 두 번째로 “화장한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나타나게 된다.

『朝鮮王朝實錄』에서 '化粧'의 의미로 '粧'과 '丹 端粧' 또는 '丹粧'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粉黛'보다 조금 일찍 나타난다.

- (3) 가. 內史黃儼等, 與議政府同選京外處女于景福宮, …上遣知申事黃喜, 謂儼曰: “此兒女輩, 以終遠父母爲憂, 食不知味, 日至瘦瘠, 不足怪也. 請更飾以中國之粧見之.” 내사(內史) 황엄(黃儼) 등이 의정부(議政府)와 더불어 경복궁(景福宮)에서 경외(京外)의 처녀(處女)를 함께 선발하였다. “이 계집아이들이 멀리 부모(父母) 곁을 떠날 것을 근심하여 먹어도 음식 맛을 알지 못해 날로 수척해진 때문이니, 괴이할 것이 없소. 다시 중국(中國)의 화장(化粧)을 시켜 놓고 보시오.”

〈太宗實錄 권16(1408.7.2.), 戊申 첫 번째 기사〉

- 나. 分遣各道巡察司, 更選處女… 百姓各戶, 如有姿色, 一皆採擇, 竝令精潔梳粧… 각도(各道)에 순찰사(巡察使)를 나누어 보내어 다시 처녀(處女)를 선발하게 하고… 백성(百姓) 각호(各戶)에 만일 자색(姿色)이 있거든 일체 모두 채택(採擇)하여 정결(精潔)하게 빗질하고 단장(丹粧)시켜…

〈太宗實錄 권16(1408.7.3.), 己酉 두 번째 기사〉

- 다. 舞隊【皂衫】 率樂官及妓【樂官朱衣, 妓丹粧】立于南東上, 重行而坐. 춤추는 대열[舞隊]【검은 적삼이다.】이 악관(樂官)과 기녀【악관은 붉은 옷을 입고, 기녀는 붉게 분장한다.】를 이끌고 남동쪽의 위쪽으로 서서 두 줄을 지어 앉는다. 〈高麗史 권71 志 25 樂二 拋毬樂〉

- 라. “管絃等伎, 今方訓習… 妓女丹 端粧前例, 自戶曹備給云…” “장악원에 물어 보았더니 ‘관현(管絃) 등 기예는 지금 연습 중이다. 기녀(妓女)의 단장(端粧)에 관한 것은 전례에 따라 호조에서 마련해 주겠다고 했는데…”

〈光海君日記 12(1610.8.9.), 辛巳 네 번째 기사〉

- 마. “管絃等伎, 今方訓習… 妓女丹粧, 前例自戶曹備給云…” “기녀(妓女)의 단

장(丹粧)에 관한 일은 전례(前例)에 따라 호조에서 해 주기로 하였는데...” 〈光海君日記 12(1610. 8. 11.), 庚戌 첫 번째 기사〉

(3가)는 경복궁에서 처녀를 선발하였는데 이들이 수척해지자 “中國之粧”, 중국(中國)의 화장(化粧)을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다. (3나)에는 자색(姿色)이 있는 여인을 정결하게 빗질하고 단장(丹粧)시키라는[精潔梳粧] 내용이 담겨 있다. (3다)는 ‘포구악(抛毬樂, 교방(教坊)에서 공놀이하면서 주고 받는 노래)’의 일부로, 여기서 ‘丹粧’은 기녀의 붉은 분장을 뜻한다. (3라)는 장악원 기녀의 단장(丹粧)과 단장(端粧)[妓女丹 端粧]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를 뒤인 (3마)에서는 기녀(妓女)의 단장(丹粧)[妓女丹粧]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얼굴만을 곱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얼굴, 머리,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밈.’이라는 의미의 ‘丹粧’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端粧’은 현대국어 사전에는 등재되지 않은 한자어로, ‘丹粧’이 얼굴, 머리 옷 등을 곱게 꾸미는 것을 지칭한다면 ‘端粧’은 일종의 몸단장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궁녀(宮女), 기녀(妓女)’ 등의 특정 계층이 이러한 ‘丹粧’과 ‘端粧’의 주된 대상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홍분(紅粉)은 ‘연지와 분을 아울러 이르는 말’, ‘화장품을 바르거나 문질러 얼굴을 곱게 꾸밈’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 두 번째 뜻이 화장(化粧)과 동일하다. 또한 홍장(紅粧)은 ‘연지 따위로 붉게 하는 화장’, ‘미인의 화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조선 시대에도 이와 동일한 의미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4) 가. 미무슨 사르미 紅粉이 하니 歡娛호매 셨 머리롤 슬노라(結束多紅粉, 歡娛恨白頭) 〈杜詩諺解(1481), 15:31b〉

나. 寶劍은 烈士를 주고 紅粉은 佳人을 준다 하니라

〈朴通事新釋諺解(1765), 3: 59b〉

다. 今後有名日及常時別小宴, 皆令着紅粧... 앞으로 명일(名日) 및 여느 때의 특별한 소연(小宴)이 있으면 다 홍장(紅粧)을 입게 하되

〈燕山君日記 54(1504. 7. 7.), 乙未 두 번째 기사〉

라. 내 슬호더 가난흔 짚 쓰리 오래 羅襦裳을 어더 뒷다니 羅襦를 또 베퍼 님디 아니호고 그디를 相對호야셔 紅粧을 시서 브리노라(自嗟貧家女 久致羅襦裳 羅襦不復施 對君洗紅粧) 〈杜詩諺解(1481), 8: 68b〉

마. 特地引紅粧 繡段裝簪額 ㄹ장 紅粧흔 사르믈 혀 앳도다 繡흔 비다노로 簪

額을 꾸미고 <杜詩諺解 重刊(1632), 5:51b>

바. 빈깃을 마즈 접디흐니 주취홍장(朱翠紅粧)과 봉관옥뢰(鳳冠玉佩) 날빛출
 ㄹ리오더라 <尹河鄭三門聚錄(연대 미상)>

(4가)는 두보의 시 「陪王使君晦日泛江就黃家亭子二首」 중, 첫 수로 왕사군과 함께 그믐날 배를 띄우고 황가정자에서 놀던 때를 배경으로 삼았다. “매무새를 갖추고 붉은 분을 바른 여인이 많으니 기뻐하며 노는 자리에서 (두보 자신의) 센 머리를 탄식한다.”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홍분(紅粉)’은 ‘하다[多]’와 호응하여 ‘화장을 한 여인’이라는 의미로 쓰였으나 (4나)에서는 여인에게 주는 ‘화장품⁹⁾’을 가리킨다. 또한 (4다)의 ‘紅粧’은 ‘着’과 함께 쓰여 ‘홍장(紅粧)을 입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특별한 상황에 예를 갖추기 위해 입는 옷’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4라)는 두보의 「新婚別」이라는 시로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출정하게 된 상황에서 신부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다. 가난한 집의 딸이 오랜만에 비단옷을 장만했으나 다시 입을 보지 못하고, 남편을 볼 수 없으니 ‘붉은 화장’을 지우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4마)와 (4바)의 ‘紅粧’은 얼굴 화장을 포함한 단장(丹粧)을 의미한다.

한편 『朝鮮王朝實錄』에서 ‘야용(冶容)’은 ‘염장(艷粧)’과 함께 쓰이기도 하였으며 이는 ‘성장(盛粧)’과 함께 경계의 대상이었다. 또한 화장의 정도를 뜻하는 ‘농장(濃粧)’은 보이지 않으며 19세기 말부터 ‘담장(淡粧)’만 발견된다.

(5) 가. “聞, 三度習儀之日, 傾城士女, 夾路縱觀, 士族之婦, 馱輪連亘, 或有艷粧冶容, 混處無別, 可駭可愕.” “듣건대 세 번째 습의하던 날 성안의 남녀들이 온통 쏟아져 나와 길 양편에서 멋대로 구경을 했는데, 사족(士族)의 부녀자들이 타고 온 가마가 즐비했으며 화장을 질게 하고 상민과 뒤섞여 있었다고 하니 경악할 일이다.” <宣祖實錄 권198(1606. 4. 8.), 丙午 두 번째 기사>

나. …始壽容態嫵媚, 言語慧黠, 上愛之. 沃等多效之, 競爲冶容. 오시수(始壽)는 용태(容態)가 아리답고 말씨가 교활하므로 임금의 이를 사랑하니, 이육

9) 『高麗史』 권71 志 25에서도 紅粉은 말 그대로 ‘붉은 분’ 즉 화장품을 지칭한다(携手勸君離別酒, 泪和紅粉滴金盃. 손을 잡고 그대에게 이별주를 권하려고 하니 눈물이 붉은 분과 섞여 금 술잔에 떨어지네 <高麗史 권71 志 25 樂二 感恩多(令)>).

(李沃) 등이 이를 많이 본받아서 다투어 야용(冶容)하였다.

〈肅宗實錄 권4(1675.9.10.), 乙未 두 번째 기사〉

다. 집의 이셔는... 말고 밧긔 나는 妖態冶容 하며 嬌樣打扮티 말음이 이 곳 이 婦容이라 〈伍倫全備諺解(1721) 1:36b〉

라. 冶容을 말며 들매 儀飾을 廢티 말며 모든 무리를 모도디 말며

〈女四書諺解(1737) 1:16a〉

(5가)는 선조 임금의 비망기(備忘記)를 통해 조서(弔書)를 맞이하는 날 전교한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야용(冶容)’은 ‘염장(艷粧)’과 함께 사용되어 ‘짙은 화장’을 가리킨다. 야용(冶容)은 ‘얼굴을 예쁘게 단장함. 또는 그 얼굴’이라는 뜻으로 ‘야용하다’는 얼굴을 예쁘게 단장한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5나)에서 이와 같은 의미로 “다투어 야용하였다[競爲冶容]”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또한 (5다)와 (5라)에서도 ‘야용’이 나타나지만 여성들에게 화장이 금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성장(盛粧)’과 ‘담장(淡粧)’은 조선 후기 문헌에서 발견된다.

(6) 가. 且於通衢, 逢盛粧少女, 立馬街上, 暴喝僮人, 使之盡脫其衣裳...그리고 마을 거리에서 성장(盛粧)한 소녀(少女)를 만나면 말을 길가에 세우고 겸인(僮人)에게 호령하여 그로 하여금 그 소녀의 의상(衣裳)을 다 벗기게 하였으니... 〈英祖實錄 권5(1725.4.27.), 甲午 첫 번째 기사〉

나. 일위 미인이 성장(盛粧) 아티(雅態)로 당하의 느려 마즈니 진짓 경국지식이라 〈玩月會盟宴(연대 미상) 156:3a〉

다. 淡粧 〈國漢會語(1895), 181〉

라. 嗟哉賢婦는 每日早起호야 盥面櫛髮에 薄施淡粧호고 入廚洗鼎호며 揀柴吹火호야 〈初等女學讀本(1908), 22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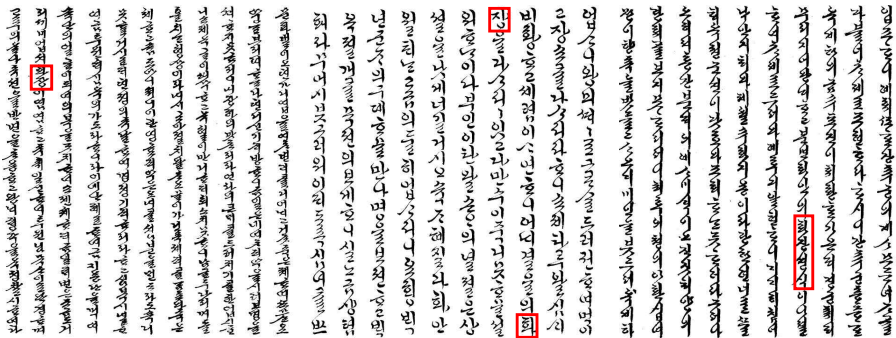
현대국어에서 ‘얼굴과 몸의 꾸밈을 화려하게 함.’을 뜻하는 ‘성장(盛粧)’은 조지빈(趙趾彬)의 횡포에 대한 내용을 다룬 (6가)에서와 같이 경계의 대상이었다. (6나)의 18세기 국문 장편 소설에서 ‘성장(盛粧)’은 ‘얼굴과 몸의 꾸밈을 화려하게 함.’을 의미한다. 또한 ‘담장(淡粧)’은 ‘수수하고 얇게 화장을 함. 또는 그 화장’을 의미하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 문헌에서 나타난다. 다만 이와 같은 화장의 정도를 뜻하는 용어에서 ‘농장(濃粧)’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밖에 화장(化粧)에 관한 또 다른 용어로 현대국어에는 없는 ‘응장(凝粧)’이 있었으며 이는 ‘얼굴을 단장하고 옷을 화려하게 차려입음.’이라는 의미의 ‘응장성식(凝粧盛飾)’으로 쓰이거나 이때 ‘성식(盛飾)’을 ‘성복(盛服)’으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 (7) 가. 細柳 갓튼 가는 허리 凝粧盛飾 錦繡衣裳 외씨 鬚치 고은 발시
 (박흥보가(신재효본))
- 나. 일위 미인이 응장성식(凝粧盛飾)으로 얹혀 나아와 절후여 왈
 (現夢雙龍記 9:31b)
- 다. 婦女들의 凝粧盛服 畫閣에 隱映하니 鸚鵡도 戲弄하며 <악부上2>

앞서 (5)에서 살펴보았던 ‘야용(冶容)’이 ‘염장(艷粧)’과 더불어 얼굴을 변화시킬 만큼의 가장 짙은 화장이라면 ‘응장(凝粧)’은 혼례나 의례 때의 적당히 짙고 품위 있는 화장을 일컫는다.¹⁰⁾ (7가)와 (7나)에서는 ‘凝粧盛飾’으로 쓰였는데 이것은 얼굴을 꾸미는 것과 옷을 갖추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7다)에서는 ‘凝粧盛服’이 쓰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응장(凝粧)’은 조선 전기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후기에 이르러 활용된 것으로 보이며 현대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이제 ‘化粧(化粧)’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化粧’은 조선 후기 국문 장편 소설 (작자와 연대 미상)에서 확인되며 ‘化粧성식’이라고 나타나기도 한다.



玩月會盟宴 권46 65(31b) 現夢雙龍記 권2 88(44b) 尹河鄭三門聚錄 권98 10b

<그림 2> ‘化粧’ 용어가 쓰인 조선 후기 문헌

10) 이지연, 2020 「전통 화장(化粧) 문화와 미의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5-16면.

〈그림 2〉의 상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국문 소설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한자를 표기하였다.

- (8) 가. 금일 희변(駭變)은 조금도 거리끼미 업서 화장(化粧)이 염염하고 주취 일신하여 후원 님목 스이 〈玩月會盟宴 46:31b〉
- 나. “심시(心思) 비황(悲惶)하고 세렴(世念)이 스연하니 어니 걸을의 화장(化粧)을 다스리리잇고 다만 수이 죽디 못흐를 설워호니이다”
〈現夢雙龍記 2:44b〉
- 다. 미인의 옥면 화장이 춤치 업스니 아름다옴을 사롬마다 브라보니 풍뉘 셋 돌고 〈빙빙던(17--), 114〉
- 라. 분면화안(粉面花顏)의 화장성식(化粧盛飾)이 나럴호여 차례로 드러와
〈尹河鄭三門聚錄 98:10b〉
- 마. 덩쇼계 쏘호 화당(化粧) 성식(盛飾)으로 좌(座)의 님(臨)호니
〈現夢雙龍記 3:15a〉
- 바. 엄나왕 스지(使者) 일개 화장성복(化粧盛服)호 부인을 압세우고
〈漢朝三姓奇逢 1:15a〉

『한국고전용어사전』 5(한국고전용어사전편찬위원회 편, 2001: 855)에는 시체를 불사르는 불교식 장례법인 ‘火葬’, 금은제 허리띠를 만들던 장인인 ‘吒匠’과 가죽이나 비단을 재료로 신발을 제작하던 장인인 ‘靴匠’, 왕실과 사원에서 필요한 조화(造花)를 만들던 사람을 의미하는 ‘花匠’ 등이 실려 있다. 또한 『古典註解事典』(黃忠基, 2005: 1332)에는 앞선 ‘吒匠’과 ‘花匠’ 외에 배를 짓는 뱃사공을 뜻하는 ‘划匠’, 배에서 밥을 짓는 사람인 ‘火匠’, 재앙과 장애가 되는 일을 가리키는 ‘禍障’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한국어 역사 말뭉치와 한국사데이터베이스에서는 ‘火葬’이 주로 나타나며 ‘花匠’도 일부 발견된다. 이에 따르면 ‘化粧’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8)의 예를 통해 ‘화장’의 쓰임이 확인되며 한자가 명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의미와는 다른 ‘化粧’을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화장은 ‘성식’과 ‘성복’이라는 옷차림과 함께 쓰이기도 한다. 이처럼 ‘화장’은 개화기보다 앞선 조선 후기 문헌에서 사용되었다.

宋敏(1990)에서는 갑오경장(1894) 이후의 일본어의 간섭을 현대국어의 어휘 체계의 변화 요인 중 하나¹¹⁾라고 보았다. 일본어의 간섭은 전통적 어휘의 어형

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예로 『(語法會話)朝鮮語大成』¹²⁾의 부록에 실린 “化粧(丹粧)”을 들었다. ‘化粧’이 일본식 한자어라면 괄호 안의 ‘丹粧’은 전통적인 한국식 한자어에 해당하며 일본식 한자어로의 대치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3)의 예에서 단장(丹粧)은 “얼굴, 머리, 옷차림 따위를 곱게 꾸밈.”이라는 의미로 분대(粉黛)보다 조금 일찍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살핀 (8)의 예를 통해 갑오경장(1894)보다 앞선 시기인 조선 후기에도 ‘化粧’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자 문화권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가정할 때 ‘化粧’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¹³⁾ 현대국어의 ‘화장(化粧)’은 중국어로는 ‘化妆[huàzhuāng]’, 일본어로 ‘化粧[けしょう]’이라고 한다. 중국어에서 표기 방식이 다를 뿐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어의 발음도 [화장]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조선 시대 ‘단장(丹粧)’을 비롯한 여러 단어들이 쓰이다가 어느 시기 ‘화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그 세력이 커지면서 대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20세기 초 신소설에서는 ‘단장(丹粧)’ 대신에 ‘화장(化粧)’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화장(化粧)이 사용되기 이전까지 ‘분대(粉黛)’나 ‘장식(粧飾)’, ‘단장(丹粧)’ 등이 쓰였으나 조선 후기 18세기 문헌에서 ‘화장(化粧)’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고 하겠다.

11) 宋敏, 1990 「어휘 변화의 양상과 그 배경」, 『국어생활』 22, 44-45면.

12) 奥山仙三(1930), 『(語法會話)朝鮮語大成』, 日韓書房.

13) 김현정(2014b: 124)에서는 헤이안(平安) 시대(794-1185)부터 얼굴과 몸 전체를 단장한다는 의미로 ‘화장’이 쓰이기 시작했고 그 범위가 얼굴로 축소되었다고 보았다. 이후 이것이 개화기 한국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예로 1922년과 1928년 화장품 광고와 1927년 잡지에 쓰인 ‘화장’을 들었다. 여기서 “개화기 『新女性』 이란 잡지”라는 지칭을 통해 1920년대를 개화기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 사전(漢查查, [https://hanchacha.com/ghyzd/](https://hanchacha.com/ghydz/))에서는 ‘妝’이 곧 ‘화장(化粧)’을 의미하며, “婦女的容貌修飾(여성의 외모를 꾸미는 것)”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 예로 (4라)의 “羅襦不復施 對君洗紅妝(杜甫, 新婚別)”과 “曲罷曾教善才服 妝成每被秋娘妒(白居易, 琵琶行)”를 들었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두보(杜甫, 712-770)와 백거이(白居易, 772-846)가 시작(時作) 활동을 했던 당나라 때부터 ‘화장(化粧)’을 ‘妝’이라고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3. ‘化粧’ 관련 어휘를 통해 본 조선 시대의 화장 문화

한국의 화장 문화는 삼국시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고구려 수산리 고분 벽화에서 뺨과 입술에 연지 화장을 한 여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름다운 육체에 아름다운 정신이 깃든다는 영육일치사상(靈肉一致思想)으로 신라의 화장 기술과 화장품 제조 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하게 된다.¹⁴⁾ 통일 이후에는 화장이 다소 화려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고려 시대에는 기생의 분대 화장과 여염집 부인들의 옅은 화장으로 이원화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결혼이나 외출의 의식 행위로, 기녀와 궁녀라는 특수 계층과의 차등을 두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었다. 화장은 얼굴에 분을 칠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머리와 눈썹 모양, 몸치장, 장신구의 사용 등과 함께 발달되었다. 3장에서는 화장 관련 어휘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 화장 도구, 화장품 장수 등을 통해 조선 시대의 화장 문화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의 화장(化粧) 관련 어휘에 무엇이 있었고 화장 문화는 어떠한가. 규방가사(閨房歌詞)는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예의범절에 관하여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계녀가(誡女歌)’라고도 불린다. 교훈을 제시하는 방법에 차이는 있으나 「용부가(庸婦歌)」에서도 인륜이나 도덕을 모르는 어리석은 부인[備婦]을 등장시켜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제시하고 있다.

- (9) 가. 흥보기 싫다마는 저 부인(婦人)의 거동(舉動) 보소
 시집간 지 석 달 만에 시집살이 심하다고
 친정에 편지하여 시집 흥을 잡아내네...
 반분대(半粉黛)로 일을 삼고 털 뽑기가 세월이라
 시부모가 경계(警戒)하면 말 한마디 지지 않고
 남편이 걱정하면 뒤반아 맞겨수요...

〈용부가(庸婦歌)(연대 미상)〉

나. “全羅右水使安崇憲... 前爲內乘時, 稠人廣坐中, 自請呈戲, 脫其袍帽, 面傅粉

14) 김희숙, 2000 『(한국과 서양의) 化粧文化史: 화장문화와 화장 기법』, 청구문화사, 13-14면;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위음, 2006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 한국의 화장문화』, 코리아나화장품, 12면.

墨, 作偶人形樣, 踴躍進退... 汚辱衣冠... 請命罷職.” “진라 우수사 안송헌(安崇憲)은... 전에 내승(內乘)이 되었을 때 사람이 꼭 찬 넓은 좌중에서 놀이를 보이겠다고 자청하고 나서서 겹옷과 모자를 벗고 얼굴에 분칠을 한 뒤 광대의 형상처럼 뛰어오르기도 하고 나아가고 물러가기도 하는 등... 의관(衣冠) 사회를 모욕시킴이... 파직하라 명하소서.”

〈光海君日記 正草本 81(1614. 8. 20.), 庚子 두 번째 기사〉

- 다. 絞面 얼굴의 털미다 丹의 곤지 搽面 분바르다 膏脣 연지찍다 臙脂 연지 粧奩 성적 鏡臺 경대 髮 髻 머리 〈廣才物譜 1(18--), 人道2a〉
- 라. 겨울에 얼굴이 거칠고 터지는데 달걀 세 개를 술에 담가 김이 세지 않게 나흘이나 일주일쯤 두었다가 얼굴에 바르면 트지 않을 뿐 아니라 윤(潤)이 나고 옥 같아진다. 얼굴과 손이 터 피 나거든 돼지발 기름에 괴화(槐花)를 섞어 붙이면 낫는다. 〈閩閩叢書 4(1809), 「雜著」 面脂法〉

(9)의 예에서 몇 가지를 특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粉黛'는 “분을 바른 얼굴과 먹으로 그린 눈썹”, “화장한 아름다운 여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의미한다. 문맥상 (9가)의 '반분대(半粉黛)'는 '살짝 칠한 얇은 화장'을 의미하는데 '化粧'이나 '淡粧'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다른 어휘가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 사회임에도 여성의 자기 관리라고 할 수 있는 '化粧'에 대해 경계하고 있으며 비판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는 점이다.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와 상반되게 여염집 여성에게는 화장이나 눈썹 정리조차 허용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보다 앞선 시기인 (9나)에서 '粉墨'는 '化粧'을 의미하나 조선 사회의 관료 파직의 사유가 될 만큼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화장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화장이 금기시되었던 것이다.¹⁵⁾

한편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9다)의 어휘집 『廣才物譜』 권1 「人道部」에는 '분(粉)을 바르다'라는 뜻을 가진 “搽面”, ‘연지(臙脂)를 찍다’의 의미로 “膏脣” 등과 같이 화장과 관련된 고유어와 한자어가 함께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여기에 '化粧'은 포함되지 않았으나 '絞面'을 통해 분을 바르기 전 얼굴의 털을 미는 행위가 있었고, 화장품을 수납하면서도 거울을 볼 수 있는 '鏡臺'의 존

15) 고려 시대 사치와 퇴폐 풍조에 대한 반작용으로 조선 초기에는 근검 절약을 강조하여 옷차림과 장신구 착용에 대한 금지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조선 후기 이덕무의 『士小節』(1775) 「婦儀」편에도 여성의 화장을 금하는 내용이 있다.

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조선 후기의 생활 백과사전이라 불리는 憑虛閣 李氏의 (9라)의 『閨閣叢書』 卷之四의 병 다스리기(靑囊訣)에 실린 「雜著」(정양완 소장본 필사본 총 6권)에는 피부 관리법이라 할 수 있는 ‘면지법(面脂法)’이 소개되어 있다. 이와 같은 민간에서의 전통식 화장품 제조법을 통해 조선 시대 여성들이 미용에 관심이 있었으며 피부를 가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¹⁶⁾

먼저 조선 시대 여성들이 사용했던 화장품으로 연지(臙脂)와 백분(白粉)을 아울러 이르는 ‘지분(脂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분(米粉)’은 풀을 끓일 때 사용했으므로 ‘연분(鉛粉)’만 확인되는 셈이다.

- (10) 가. 內喪則首飾一... 具高飛籠一、鏡一、臺甲具脂粉筒一... 내상(內喪)이면 수식(首飾) 1개... 고비롱(高飛籠) 1개, 거울[鏡] 1개로 대갑(臺甲)을 갖추. 지분통(脂粉筒) 1개...

〈世宗實錄 권135(1423년 이후) 오례 흥례 의식 천전의(遷奠儀)〉

- 나. 曹彙妻洪氏家, 贈段·紗各一匹、生絹四匹、畫手帕四粉、臙脂·針各一封、白翎一雙. 조휘(曹彙)의 아내 홍씨(洪氏)의 집을 지나다가 들려서, 단(段)·사(紗) 각각 1필씩과 생초(生絹) 4필, 화수파(畫手帕) 4, 분(粉)·연지(臙脂)·바늘[針] 각각 1봉(封), 백翎(白翎) 1쌍(雙)을 주니

〈世祖實錄 권46(1468. 5. 15.), 甲戌 첫 번째 기사〉

- 다. 禮物各色段子四匹、裏絹四匹、綿燕脂五十片、鉛粉一十兩. 예물(禮物)은 각색 단자(段子) 4필(匹), 이초(裏絹) 4필(匹), 면연지(綿燕脂) 50편(片), 연분(鉛粉) 10냥(兩)이었다.

〈世祖實錄 권20(1460. 6. 4.), 壬子 두 번째 기사〉

- 라. 所索白粉, 本非我國所產, 未得從諭. 찾으신 백분(白粉)은 본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고유(告諭)를 따르지 못합니다.

〈成宗實錄 권46(1475. 1. 22.), 壬申 네 번째 기사〉

(10가)의 천전의(遷奠儀)는 재궁(梓宮)을 옮길 때 드리는 제사[奠]를 의미하는데 아낙네의 초상이라는 내상(內喪)에 ‘脂粉筒’을 올렸다는 것이다. 당시 여성이 화장품으로 ‘脂粉’을, 화장 도구로 ‘鏡’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

16) 『閨閣叢書』 卷之二의 「粧臺錄」에는 눈썹 그리는 이름(畫眉名), 입술 연지 찍는 이름(點脣名), 매화장(梅花粧) 등이 실려 있다. 여성들의 눈썹, 입술, 머리 등을 다루고 있다.

한 (10나)에서 조선 전기 여염집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粉’과 ‘麝脂’를 하사하였음을 보여 준다. (10다)에서는 ‘鉛粉’이 나타나는데 순면에 붉은색의 홍화 즙을 흡수시켜 만든 ‘綿燕脂’도 정혼을 위한 예물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10라)에서와 같이 ‘白粉’은 생산되지 않았으므로 ‘白粉’이 아니라 ‘鉛粉’이 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 분(粉)의 종류를 쌀, 서속(黍粟) 가루, 홍화씨 등으로 만든 ‘白粉’이라고 불리는 ‘米粉’과 납 성분이 포함되어 점성이 있는 ‘鉛粉’으로 나누는 것¹⁷⁾과 차이가 있다. ‘鉛粉’이 앞서 사용되었고,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나 ‘白粉’은 생산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완길(1987: 63)에서 매분구(賣粉媪)¹⁸⁾에 대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숙종(肅宗, 1675-1720) 시절의 이야기라고 제시한 바 있다. 조선 후기에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졌을 것이나 사실상 보다 앞선 시기인 성종 대에도 분을 파는 여인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11) 가. 其所謂亡吾之, 乃賣粉市女, 而受人貨財, 行賂於朝士, 爲其業者也. 그 이른바 망오지(亡吾之)란 분(粉)을 팔며 다니는 계집으로, 남의 재물을 받아서 조사(朝士)에게 뇌물을 행하는 것으로 업(業)을 삼는 자입니다.

〈成宗實錄 권221(1488. 10. 19.), 己酉 네 번째 기사〉

나. 아과 牙婆 〈倭語類解(1781), 上15b〉

牙婆 방물장수 〈廣才物譜(18--), 民業3a〉

방물장수 牙婆 〈蒙諭篇(1810), 上8a〉

다. 방물장수가 동이 낫던가 얼굴에 분 한 톨어치도 못 사 받오고

〈紅桃花(1908)〉

라. 하로는 엇더흐 방물장수 혼 아이 들어오며 「바늘이나 실 삼시오 뎡흔 분화 로슈도 잇습니다」 〈月下佳人(1911), 12〉

마. 엇던 보스집 장수가 촌으로 든니며 방물을 풀더니 혼집에 가서 방물을 사라흐니 〈大韓每日申報(1908. 11.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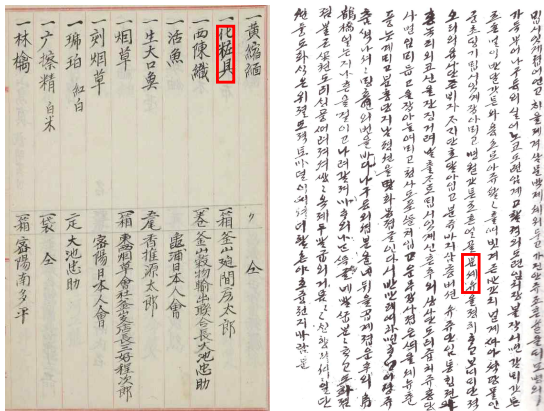
(11가)에서 1488년에 분(粉)을 파는 여인인 “賣粉市女”가 존재했고, 이것은

17)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위음, 2006 앞의 책, 24면.

18) 화장품과 화장 도구를 집집마다 방문 판매하는 여자를 지칭하며 여성의 일상 용품의 구매를 돕는 동시에 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전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전완길, 1987: 63)고 한다.

명칭에는 차이는 있으나 대략 18세기 말부터 ‘방물장수’, 다시 말해 ‘牙婆’로 불렸다. 이와 같은 어휘를 통해 나이가 많은 여자나 아이가 붓짐을 꾸려 다니며 분(粉)을 비롯한 바늘 등을 판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기록에 의하면 15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화장품 판매원이 있었고, 18세기에 이르러 민간에서 여성들의 화장 문화가 본격화된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1라)에서와 같이 ‘분화 로슈(분과 로션)’ 등이 판매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920년대 후반부터 『東亞日報』에서 보이던 화장품 광고를 연상케 한다.¹⁹⁾

앞선 내용을 통해 조선 시대에는 화장품 판매원이 존재했고, 이들은 부녀자들에게 바느질 도구를 비롯한 화장품과 화장 도구의 공급자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존재는 화장 문화의 융성과 보편화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좌)南巡幸日記 第九號 進獻品明細表 釜山 105a(1909. 1.) (우)南湖居士 成春鄉歌 3 (작자 및 연대 미상)

〈그림 3〉 ‘화장구(化粧具)’와 ‘분세수(粉洗手)’

〈그림 3〉의 1909년 순조가 남순행을 할 때 진헌했던 품목에서 ‘化粧具’가 발견된다. 또한 남호거사가 大正 4년(1915년) 10월 28일 기필하여 12월 11일 완성한 「成春鄉歌」에서 “도련임 치장 불작시면... 궁초덩기 밋시 잇게 잡아미고 명월갓튼 조흔 얼굴 분세수를 정히 흐고”를 확인할 수 있다. 분세수는 ‘세수하고 분(粉)을 바름’을 뜻하는 것으로 얼굴을 가꾸는 행위를 말

19) 『東亞日報』(1924. 1. 12.)에는 박승직의 “婦人化粧品 ‘朴家粉’ 판매 광고가 실려 있다. “귀부인 화장하실 때 박가분을 콩알만치 떼어 손바닥에 놓고 물을 조금 떨어뜨리고 개이면 백배 이상 불어나서 안면에 만족하게 바르면 됩니다.”의 문구에서 일부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광고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10년대 말부터 일본 화장품이 많았던 당시 저렴한 가격의 한국 최초 화장품으로 인기가 있었다. 서구 문화의 수용으로 등장한 신여성, 기생 등의 극소수 계층의 화장품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1930년대부터는 북을 치며 크림을 팔아 ‘동동구리무’라는 일본 제품도 큰 인기를 누렸다.

한다.

다음으로 화장 관련 도구는 언제부터 어떠한 어휘로 지칭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화장 도구를 담은 화장 상자(化粧箱子)인 장렴(粧奩)과 거울을 포함한 경대(鏡臺)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 (12) 가. 御勤政殿, 受朝賀, 日本國王使者僧承傳等, 隨班獻土物… 銚子十柄, 提子十介, 長刀二柄, 粧奩一副. 근정전(勤政殿)에 나아가 조하(朝賀)를 받으니, 일본 국왕(日本國王)의 사자(使者) 중 승전(承傳) 등이 수반(隨班)하여 토물(土物)을 바치므로… “...조자(銚子) 10병(柄), 제자(提子) 10개, 장도(長刀) 2병(柄), 장렴(粧奩) 1부(副)입니다.”

〈世祖實錄 권3(1456. 3. 15.), 甲申 첫 번째 기사〉

- 나. 日本國王源義政遣僧正球等來聘, 其書曰: ... 蒔繪硯甲一箇鏡臺一箇, 酒壺一雙, 銚子提一具. 일본 국왕(日本國王) 원의정(源義政)이 중[僧] 정구(正球) 등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시회 연갑(蒔繪硯甲) 1개, 경대(鏡臺) 1개, 술병 1개, 조자제(銚子提) 1벌”이라 하였다. 〈成宗實錄 권48(1473. 10. 27.), 己酉 세 번째 기사〉

- 다. 男家에 돈이 이셔 財禮를 즐겨 내고 陪嫁와 粧奩을 다 貰티 아니호고
〈伍倫全備諺解(1721), 2:21b〉

라. 粧奩 성격함 〈譯語類解補(1775), 30a〉

마. 紋面 얼굴의 털 미다 丹의 곤지 搽面 분바르다 膏脣 연지찍다 臙脂 연지 粧奩 성격 鏡臺 경디 髻 짚머리 〈廣才物譜(18--), 1:人道2a〉

바. 쇼제 장념(粧奩)의 거울 프라 사람을 다 후히 더접히니

〈후슈호던(연대 미상), 104〉

- 사. 천연(天然)이 협실(夾室)로 드러가 즈기 장념(粧奩)의 진주탄 일쌍(一雙)과 황금 풀쇠를 버서 〈낙성비룡(연대 미상), 1:44b〉

(12가)와 (12나)에서는 제조와 성종 임금 보위 시절 일본 국왕의 진상품에 ‘장렴(粧奩)’과 ‘경대(鏡臺)’가 포함되어 있어 이것들이 궁중에서 필요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2다)부터 (12사)의 ‘장렴(粧奩)’은 ‘성적/성적함’으로 쓰였고, ‘鏡臺’는 ‘경디’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도 장렴(粧奩)에 패물과 같은 귀중품을 담아 보관하기도 하였음을 보여 준다. 경대(鏡臺)는 거울 없이 화장 도구를 담았던 빗집에서 보다 발달된 형태로 조선 후기 거울이 유입되면서 화장함 과 거울의 기능이 합쳐진 것이다.²⁰⁾ 위 기록에 따르면 궁중에서는 조선 전기에

도 경대(鏡臺)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조선 시대 경대(鏡臺)는 한국인의 온돌 생활에 맞게 거울의 기울기와 높낮이를 조정할 수 있게 만들었고, 당시 여성들의 키에 맞추어 적절한 높이로 제작되었다.

조선 시대 사람들은 유교 문화를 향유하였으나 왕실 무덤에서 화장(化粧)과 관련된 껌문거리 즉 다양한 부장품이 발견된다. 또한 앞서 제시했던 화장품 판매원이 조선 중기부터 존재했으며 조선 후기 보부상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사대부 여성의 생활 백과사전격인 빙허각 이씨의 『규합총서』에 천연 화장품 제조법이 담겨 있고, 화장품과 화장 도구 17종을 소재로 한 조선 후기 실학자 안정복의 가전체 소설 『女容國傳』이 있었다는 점은 계층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던 화장 문화가 점차 계층에 관계없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선 전기의 화장은 왕실의 여성과 궁녀, 기녀 등에 한정되었고, 화장의 정도도 달랐으며 후기에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미덕이라고 여겼던 여성들은 옅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고, 의식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몸치장과 함께 이루어졌던 것이다. 또한 화장품은 주로 자연에서 재료를 얻어 손수 만들다가 제품으로 생산된 분을 구입하여 바르게 된다. 연분(鉛粉)의 납 성분으로 인해 피부가 괴사(壞死)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대체로 조선 시대 사람들은 짙은 화장보다는 은은한 화장법을 선호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맺음말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는 어느 시대나 존재했고 이것은 화장(化粧)이라는 방식으로 표출된다.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 화장에 관한 어휘를 통해 당대의 화장 문화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화장(化粧)’이라는 용어가 개화기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라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조선 후기 연대 미상의 국문 소설에서 ‘화장’이 쓰였으며 1909년 기록에서 ‘化粧具’가 발견된다. 이를 토대로 관련 화장 관련 어휘를 문헌에서 찾아 그 의미 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엮음, 2010 『한국의 화장도구』,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11면.

化粧(化粧)이 사용되기 이전에 쓰였던 것 중, 가장 먼저 문헌에서 나타나는 것은 ‘장식(粧飾)’이다. 조선 시대의 장식(粧飾)은 얼굴을 꾸미는 행위가 아니라 장신구나 몸을 치장하는 장식(裝飾)의 의미를 가지며, 장식(裝飾)은 조선 시대에는 ‘飾’이라는 한자로만 쓰였다는 것이다. 또한 분대(粉黛)가 ‘化粧(化粧)’을 대신하여 쓰이기도 하였으나 사실상 조선 시대의 분대는 주로 ‘궁녀’ 또는 ‘기생’ 즉 ‘곱게化粧한 여인’을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살짝 칠한 얇은化粧’이라는 의미의 조선 후기 ‘반분대’와 같은 단어를 통해 ‘化粧(化粧)’이라는 의미를 명확하게 띠게 된다. 즉 분대(粉黛)는 대체로 궁녀나 기생과 같이 곱게 단장한 여인을 의미하였다가 시간이 흘러 본래의 의미보다는 오늘날의 ‘化粧(化粧)’의 뜻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이다. 이 밖에化粧의 상태나 정도를 뜻하는 ‘야용(冶容)’과 ‘성장(盛粧)’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고, ‘농장(濃粧)’은 문헌상 드러나지 않으나 ‘담장(淡粧)’이 발견된다.

조선 전기化粧은 주로 왕실의 여성과 궁녀나 기녀 등에 한정되었으며 ‘지분(脂粉)’과 ‘연분(鉛粉)’이라는化粧품, ‘장렴(粧奩)’, ‘경대(鏡臺)’ 등의化粧 도구를 확인할 수 있다. 매분구(賣粉媼)나 방물장수의 등장, 민간의化粧품 제조법인 담긴 서적 등을 통해 조선 후기에化粧 문화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교 사상에 따라 조선 시대 사람들은 은은한化粧법을 선호하였다는 것이다. 본고에 서는化粧 관련 어휘를 문헌을 면밀하게 살핌으로써 조선 시대의化粧 문화의 일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주제어 :化粧(化粧),化粧 문화, 분대(粉黛), 연분(鉛粉), 장렴(粧奩), 매분구(賣粉媼)

투고일(2024. 04. 30), 심사시작일(2024. 05. 10), 심사완료일(2024. 05. 22)

〈Abstract〉

Study on Makeup-related Vocabulary and Makeup Culture during the Joseon Dynasty

Song, Mi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makeup culture through the vocabulary related to makeup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term makeup (化粧) is found in a novel of unknown date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Before that, there was 'Jangsik(粧飾)', and in the Joseon Dynasty, Jangsik(粧飾) meant not the act of decorating the face, but decoration of the body or ornaments. In addition, 'Bundae (粉黛)' was mainly referred to a 'gungnyeo(court lady)' or 'gisaeng(female entertainer)', that is, a 'woman with fine makeup', and on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did it take on the meaning of 'lightly painted makeup'.

During the Joseon Dynasty, cosmetics called 'Jibun (脂粉)' and 'Yeonbun (鉛粉)', and cosmetic tools such as 'Jangryeom (粧奩)' and 'Gyeongdae (鏡臺)' were used. Makeup, which was limited to royal women, court ladies, and courtesans, expanded its scope to the private sector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the emergence of cosmetics salesmen and the spread of cosmetics manufacturing methods. It can be seen that women during the Joseon Dynasty preferred light makeup, 'Damjang (淡粧)' rather than dark and flashy makeup such as 'Yayong (冶容)' or 'Seongjang (盛粧)'.

Key words : makeup, makeup culture, Bundae, Yeonbun, Jangryeom, cosmetics sales
woman (Mae Bun-gu)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